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서울대인과 서울대 도서관의 경험

기간 | 2020. 6. 8. ~ 11. 20.

장소 | 중앙도서관 관정관 2층 관정마루

내용 | 한국전쟁 70주년, 4월혁명 60주년
전태일 50주년, 5월광주 40주년

주최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large, modern museum hall with a curved, grey stone wall and a wooden floor. The wall is covered with large informational panels and posters. A man in a suit stands on a small stage, addressing a group of people. The audience, consisting of men and women, is seated on tiered wooden steps. A large, dark, abstract sculpture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서울대인과 서울대 도서관의 경험



박종철 추모비 ©서울대 중앙도서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전태일 열사 50주년, 5·18 광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들은 오늘의 한반도를 빚어낸 남달리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다.

중앙도서관은 6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특별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서울대인과 서울대 도서관의 경험」을 연다. 한국전쟁, 4월 혁명, 전태일 열사의 분신, 5월 광주라는 역사적 고비마다 서울대인이 맡은 역할과 서울대 도서관이 겪은 경험을 통해 현대사 속의 자화상을 그려볼 것이다.

서울대인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도 앞장섰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도서관 안팎에 그 생생한 역사적 흔적이 숨어 있다.

4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시작되는 ‘서울대 민주화의 길’이 증언하고 있지만,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광주 학살에 항의하는 학내 시위에 호응하며 6층에서 투신한 김태훈 열사, 도서관 창문 난간에 매달려 시위를 주도하다가 추락하고 만 황정하 열사가 있다. 때로 도서관 점거마저 불사하며 싸움에 나선 당시 학생들의 눈에 공부에 열중하는 열람실의 벚들은 사회 현실을 외면하는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김태훈 열사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열람실의 벚들이 모두 개인의 입신만을 앞세우지 않았으며,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간단하지 않으며, 세상은 선악의 이분법으로 쉽게 가를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탓에 애초의 계획을 대폭 축소했지만, 이 전시회가 우리 현대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킬길 바란다.





4월학생혁명기념탑 ©서울대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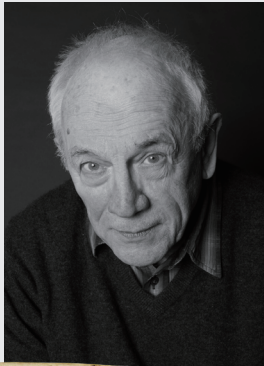
한국전쟁과 서울대 도서관의 수난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서울대는 도서관 장서 중 귀중본들조차 피난시킬 여유가 없었다. 북한 인민군은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9·28 서울 수복 시에 도서관 장서 중에서 특히 규장각 도서를 반출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각했다. 이후 1951년 1·4 휴전 때 도서관 당국자들은 규장각 도서 가운데 귀중본만이라도 피난시키려 했다.

당시 문교부장관이던 백낙준 박사는 트럭 8대를 긴급 동원해서 그 중 5대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남은 3대를 국립도서관으로 보냈다. 규장각 도서 중 『승정원일기』 3천여 책과 『조선왕조실록』 강화본, 태백산본, 그리고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 6,300여 책이 부산으로 소개된 것은 이 5대의 트럭 덕분이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도서는 다시 적군에게 송두리째 맡길 수밖에 없었다.

정전 후인 1953년 9월 학교가 서울로 돌아왔을 때 도서관 사서들은 경악했다. 많은 책들이 문리대, 법대, 박물관 창고 등에 흩어져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가마니에 넣어져 운동장에 깔려 있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이던 이병도 박사로부터 연희의 도서가 일부 여기에 섞여 있으니 와서 보아달라는 통지를 받고 서고까지 찾아가서 보고 놀랐다. 서고는 텅 비어 있고 난데없이 허청 같은 창고 속에 문제의 규장각 도서들이 몇백 석 노적가리처럼 쌓아올려져 있었다. (중략) 시멘트로 된 밑바닥에는 썩은 물이 흠뻑 고였다.”(연세대학교 전 도서관장 민영규 교수의 증언, 『서울대학교 40년사』 참조)



70년 만에 귀환한 서울대 도서관 장서

지난 4월 70년 만에 서울대로 돌아온 고서 De Ratione(사진)는 1951년 1월 초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을 빼앗기던 당시 서울대 도서관에 잠시 피신했던 영국군 부대의 한 병사가 가져갔던 책이다. 그 병사는 자신이 전사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살아 돌아간다면 이 끔찍한 경험을 증언할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챙겨들고 퇴각했던 것이다. 65년 동안 이 책을 소장했던 영국 작가 앨런 가너(Alan Garner)가 이 특별전시를 위해 써준 아래의 글에 이 책의 사연이 담겨 있다.

2월 20일 앨런 가너는 언어학과 김주원 교수에게 책을 반환하고 싶으니 책임있는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를 전달받은 중앙도서관은 바로 그에게 연락했고, 이 책의 귀환에 얹힌 사연을 이 특별전에 포함시킬 계획을 알렸다. 바로 다음 날 앨런 가너는 책 반환을 약속했고, 4월 9일 책은 무사히 돌아왔다.

유엔군 중에 미국의 참전 규모가 압도적이었지만, 영국은 한국전쟁에 총 56,700명을 참전시켰다. 영국군이 치른 큰 전투로는 1951년 4월 22일~25일 글로스터 연대가 격전을 벌인 임진강 전투(설마리 전투)가 유명하며, 현재 파주군 적성면 설마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영국군은 한국전쟁에서 전사 1,078명, 부상 2,674명, 포로 979명의 피해를 입었다.

모든 것이 공유하는 본성에 대하여

1955년 9월 스무 살의 초급 장교로 런던에 주둔하고 있던 저는 전역을 2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 배치된 부대로 향하던 한 상사가 저를 찾아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1951년 1월 초, 상사와 부하들은 중국군의 공세 속에 서울에서 퇴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것도 없이 한 도서관에 숨어든 상태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였고, 살기 위해 불을 피울 유일한 연료는 가구와 책들뿐이었습니다.

도망칠 기회가 찾아왔고, 부대원들은 살기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먼지와 어둠의 혼란 속에 상사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살아남는다면, 이 경험을 입증할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그는 달려 나가며 책 한 권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후에, 그 책은 그가 잊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책을 건네주었고, 나는 표지를 펼쳤습니다. 라틴어로 된 책의 제목은 *De Ratione communis linguarum & literarū commentarius Theodori Bibliandri* (『모든 언어와 문자가 공유하는 본성에 대한 테오도르 부흐만의 주해서』)였습니다. 1548년 쥐리히에서 발간된 그 책에는 두 두엣(Du Douët) 박사라는 분이 1709년에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표지 뒷면에는 제가 읽을 줄 모르는 한국어(실제로는 한자)로 된 도서관 장서인이 있었고, 50690이라는 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값이 꽤 나가는 책일 수 있으니 감정을 받아보라고 했지만, 그는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책을 치워버리고 싶다며 제가 가지지 않으면 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버렸고요. 그의 이름도 몰랐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군대를 벗어난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막달렌 칼리지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과 고대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도교수에게 그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는 테오도르 부흐만이 스위스의 언어 학자로서 코란의 첫 라틴어역 인쇄본을 편집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 책은 희귀본이 틀림없으니 잘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1974년의 어느 날, 저의 편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당시 미국에 살던 한국인 학자 한 명이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책을 보여주며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는 책의 안전을 보장할만큼 한국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없었고, 제가 갖고 있는 편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운이 좋았던 책이었으니, 그는 이 책이 또 위험에 처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책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든 다섯이고, 아직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은 계속 남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우연한 순간, 즉 이 책이 자신을 구해줬던 사람의 손에서 파괴될 뻔한 순간에 얻은 이 책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한 고서적상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분명히 귀한 책이지만, 1974년은 오랜 과거이고 이 책은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체셔의 외딴 내 집으로 배달원이 찾아와 *De Ratione communis linguarum & literarū commentarius Theodori Bibliandri*를 가져갔고, 32시간 후에 책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은 지켜졌습니다. 옳은 일이 행해졌습니다. 저는 흡족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만 볼 일일까요? 우리가 문화적 대상의 소유를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대상의 삶과 이야기들을 경험하는 머슴에 불과하다는 게 더 맞는 말이 아닐까요?

가령, 1709년 두 두엣 박사는요? 그는 누구며 어디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 책이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왜 상사는 어둠 속에 하필 이 책을 뽑아들었을까요? 저는 65년 동안 이 책의 보호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탄하며 궁금해 하는 동안, 책은 제 길을 갈 뿐입니다.

2020년 4월 14일

앨런 가너(Alan Garner)

4월혁명,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

4·19 혁명 당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위에 나선 서울대학교 학생 가운데 6명이 경찰의 발포로 목숨을 잃었다. 문리과대학 김치호(金致浩), 미술대학 고순자(高順子), 법과대학 박동훈, 사범대학 손중근(孫重瑾), 유재식(劉在植), 그리고 상과대학 안승준(安承駿)이 그들이다. 서울대생 희생자 6인은 4월 19일 당시 모두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서울대는 4월혁명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대학이다.

서울대생 희생자 6인의 사진과 약력,
「제6회 서울대학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2019. 11. 2.)

안승준문고(安承駿文庫)

당시 상과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안승준은 고시 준비를 위하여 도서관을 향하던 중 학생들의 행렬에 합세하여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총탄에 머리와 어깨를 맞고 사망하였다.

상과대학 학생들은 안승준의 희생을 추념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중심으로 헌금을 모아 1962년 4월 상과대학 도서관 안에 '안승준문고'를 설치하였다. 상과대학 학생회는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모두 593권의 안승준 문고를 확충하였다(대학신문 1964년 6월 1일자 3면). 당시 학생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안승준문고 도서에는 “4월혁명순국영령(四月革命殉國英靈) 안승준문고(安承駿文庫) 서울대학교상과대학학생회(大學校商科大學學生會)”라는 장서인이 찍혀있다.



상대도서관에 설치된 안승준기념패와 기념문고



대학신문 1960년 5월 2일 3면

조영래 변호사, 전태일 평전 집필과 출간의 과정

고 조영래 변호사(1947~1990)는 1947년 3월 26일 대구에서 아버지 조민제 씨와 어머니 이남필 씨의 3남 4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는 1964년 경기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하여 정학을 당했으며, 1965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1970년 11월 사법시험 준비 중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을 접한 직후 법대 학생장(學生葬)을 제안하고 시국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다.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재학 중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의 형을 살았다. 1974년 소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된 후 6년 가까이 도피생활 하는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가 남긴 기록들을 전달받아 평전을 집필한다.

유신체제의 붕괴로 수배가 풀린 후 1983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여 1984년 '망원동 수재 사건'을 맡아 우리나라 사법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각종 노동·인권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1986년 '부천시 성고문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5공 전두환 정권의 사악함을 만천하에 알렸으며,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90년 12월 만 43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004년 법대에 조영래 기념홀이 만들어졌으며, 2004년에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2017년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었다.

전태일 평전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의 숨 막히는 정치적 억압 아래에서 저자를 밝히지 못한 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돌베개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조영래 변호사가 세상을 뜬 직후인 1991년에야 그의 이름이 저자로 명기된 개정판이 출간된다.



조영래 기념홀 사진

‘서울의 봄’, 서울대 도서관, 광주항쟁



조정식 추모비 사진



최우혁 추모비 사진



조성만 추모비 사진

신군부의 5·17 쿠데타로 끝나고 만 짧은 ‘서울의 봄’은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을 위한 온갖 요구가 터져나오던 기간이었다. 민중 생존권의 요구는 흔히 ‘사복사태’로 알려진 광부들의 투쟁이 대표적이었다.

이 기간 도서관이 겪은 가장 기억할 경험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현확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던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을 점거하고 5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동안 농성을 한 일이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갖가지 공연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이어갔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만이 아니라 시내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이 들끓어 올랐고, 이는 5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쏟아져 나와 가두행진을 한 끝에 서울역과 시청 앞에 10만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운집하여 경찰과 대치하는 긴장된 국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5월 17일 밤 계엄령의 전국 확대 이후 서울 시내 대학생들은 쿠데타와 싸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결집하지 못했으며, 시위와 유인물 살포는 산발적인 움직임에 그치고 말았다. 오직 광주만이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처절한 항쟁을 벌였다. 광주의 충격과 광주항쟁에 대한 부채의식은 이후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 민주화의 길’을 걷다

1980년대 학생운동의 고조

‘서울대 민주화의 길’은 사회대 인근의 4월혁명기념탑에서 시작하여 농생대의 김상진 열사와 이동수 열사 추모비에서 끝난다. 서울대 구성원이라면 꼭 한 번은 이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추모비들의 사연을 되새겨봐야 한다.

이 시절의 중앙도서관을 되돌아볼 때, 김태훈과 황정하 열사를 맨먼저 기억하게 된다. 김태훈(경제학과 78)은 광주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 출신으로 광주항쟁을 겪은 후 남다른 내면의 갈등을 겪었다. 1981년 5월 27일, 1년 전 광주의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잔혹하게 진압당하던 날을 맞이하여 관악 캠퍼스는 격렬한 시위에 휩싸였다. 이 날 김태훈은 도서관 6층에서 공부하던 중에 학우들이 전투경찰과 사복형사에게 구타당하며 끌

려가던 모습을 못 견디고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뒤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세 번 외친 후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향해 몸을 던졌다. 이렇게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는 서울대인의 민주화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황정하(도시공학과 80)는 1983년 11월 8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광주학살을 방조한 미국을 비판하는 시위를 계획했다. 오후 1시경 도서관 6층 열람실의 방충망을 뜯고 5층 난간을 향해 밧줄을 타고 내려가다가 달려든 사복경찰들이 황급히 밧줄을 당기는 바람에 그만 추락하여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황정하의 부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 학생들의 체포에만 열중했다. 황정하는 영화 『밀정』에서 독립운동을 남몰래 돕는 일본 경찰 이정출(송강호 연기)의 실제 모델이었던 황옥 경부의 친손자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민주화의 길’에는 가슴 저리는 사연들이 넘친다. 1986년 봄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등이 차례로 목숨을 잃는 힘겨운 상황을 견디다 못해 한강에 몸을 던진 박혜정(국문 83)의 추모비는 1동 앞 관목들 사이에 숨어 있다. 1987년 9월 8일 군 복무 중에 보안사의 공작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분신한 최우혁(서양사 84)의 추모비는 비교적 최근에 세워졌는데, 학생운동을 하던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군 입대를 강권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후 고통에 시달리다 몇 년 후인 1991년에 한강에 투신하고 말았다.

민주화운동의 희생자가 되었던 당시에 서울대 재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모비조차 없는 열사들이 있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실상 민주주의에는 완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역사의식과 비판적 정신이 살아 있는 민주시민의 관심과 노력, 때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의 자세와 언제나 포용력 있는 연대의 추구에 힘입어 한발 한발 민주주의는 전진한다. 신동엽 시인이 노래했듯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모든 껌데기와 쇠붙이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다.

또다른 백년,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는 작년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했다. 조선 왕조의 쇠망과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의 고통을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통해 극복하기 시작했으며, 민주공화국의 빛나는 전통을 분단과 전쟁이라는 고난 속에서 발전시켜왔다. 이제 올해 2020년부터 시작하는 또다른 백년은 ‘대한민국 시즌2’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또다른 백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는 불확실하며, 숏한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서울대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제대로 이해함으로써만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다.

